

왜 일본사람들은 투자보다 저축을 선호하나요?

일본정부가 세제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운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, 개인금융자산의 현금·예금 선호 현상은 디플레이션과 맞물려 쉽게 변하지 않고 있음

1. 개인금융자산 운영 특징

-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예·적금 비율이 높음
 -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%를 넘어 15.7%에 불과한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
 - 금융자산을 운용하는데 대체로 일본사람들이 안전지향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
 - 뿐만 아니라 버블붕괴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가가 적지 않고,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과 투자를 멀리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
- 과거 수 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이러한 개인자산 운영 실태를 수정하여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는 지난 2001년에 ‘저축에서 투자로’ 라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음
 - 증권매매로 얻어지는 수익과 배당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는 등의 세제개혁을 실시했음
 - 또한 그 이전에 은행 창구에서 투자신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빅뱅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추진한바 있음

- 이러한 제도개혁에 힘입어 개인 금융자산은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주식과 투신 등 이른바 ‘리스크 자산’으로 몰리는 양상을 보였음
- 특히 은행창구에서 투자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음

2. 다시 늘어나는 적금잔고

- 이러한 개인 금융자산의 원활한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 2008년 가을에 일어난 금융 위기였음
 - 세계경제가 한 순간에 활력을 잃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었음
 - 이에 따라 고용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성향이 다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음
 - 결국 주식 등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은 다시 정기예금 등의 안정적인 저축지향 자산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- 2012년 3월 현재 일본의 정기예금 잔고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1년 수준에 육박하는 약250조 엔을 기록하고 있음
-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·예금 비율은 2004년 3월말 54.8%에서 2011년 말 현재 56.5%로 증가하였음
 - 최근 5년여 사이 채권, 투신 등 다른 금융자산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현금·예금 비율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음
 - 이처럼 현금·예금 선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디플레이션, 즉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현금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임

<참고자료>

일본은행 홈페이지